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수 신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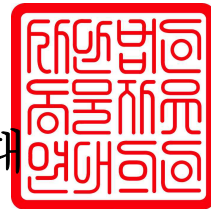
(경 유) 방역총괄과

제 목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동물복지에 준한 살처분 기준 및 장비 마련 요청 건

1.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사)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예방 및 구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확산과 연구 조사, 동물복지 정책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3. 지난 16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류 150만 마리 가까이 살처분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과정을 촬영한 영상에서 죽음을 확인 후 매몰해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와 기준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에 있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동물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과 관련 장비 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붙임 1. 동물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 및 관련 장비 계획 수립 요청서. 끝.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 한송아 (연락처 : 02-2292-6337, 메일 : hsa@animals.or.kr)

협조자 :

시행 G1401-03

2013.01.27

접수 (

)

주소 : (우 133-070)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 전화 : 02-2292-6337 / 팩스 : 02-2292-6339

대표메일 : animal@animals.or.kr / 홈페이지 : http://www.animals.or.kr / 대표 : 조희경 /

## 동물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 및 관련 장비 계획 수립 요청서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에 있는 ‘국가 동물복지5개년 계획’에 동물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 및 관련 장비 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4년 1월 3일에 있었던 제2차 동물복지5개년 계획 세부방안 마련 회의에서 동물 전염병 발생 시 인도적인 살처분 기준 마련을 제안했으나 이 제안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살처분의 사태가 온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 및 세계 178개국이 가입해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약에 따르면 동물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복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며 인도적인 방법을 고려해 살처분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동물보호법 및 AI 긴급행동지침 상에는 동물의 도살 시 고통을 최소화하라는 지침만 있을 뿐 살처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동물복지 저해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나온 살처분 방법은 오리사 내 평사에서 가스를 이용한 안락사 방법과 50~100cm 높이, 길이 20m의 구덩이를 준비해 평사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도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방법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 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 그나마 제시된 방법마저 준수하는지도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살처분 과정을 촬영한 영상들에서도 매몰 전 차량 컨테이너 안에 오리들이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살처분 진행자들이 오리를 살아있는 채로 자루에 담아 던지거나 발로 밟고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동물이 비인도적으로 도살 당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매몰 전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OIE 규약에 따르면 살처분 동물을 직접 다루는 것을 최소화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IE 가입국으로서 OIE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이 진행될 때마다 생매장 금지 및 인도적 도살에 대한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거듭되는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근본적 원인인 축산업의 계열화와 규모화에 우려를 표했으며, 집약식 축산에 대한 반성과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 정책을 적극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평상시엔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질병 발생 시엔 위기 상황만 강조되며 동물복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 전염병 발생 때마다 비인도적인 살처분 방법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동물복지는 국가 교역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만큼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국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동물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 및 관련 장비 확보에 대한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동물자유연대